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세 종류의 인생

버리고 빈손으로 떠난다.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으로 더불어 살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곤충의 삶과 비교한 글이 있어 소개한다.

곤충은 먹이를 구하기 위한 방식이 각각 다르다. 거미와 개미와 꿀벌의 먹이 구하는 방식을 인생과 비교해 본다. 첫째 거미 같은 인생이다. 거미는 먹이를 가장 많이 얻기 위해 최대한의 줄을 쳐 놓고 그 줄에 걸리는 곤충을 잡아먹고 산다.

인생도 거미 과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약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걸려들도록 해서 그 범망에 걸리면 그걸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수고와 노력 없이 남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다.

둘째 개미 같은 인생이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준비하는 곤충이다. 이 개미과에 속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산다고 자부하며 산다. 남도 돕지 않고 꾸지도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다.

셋째 꿀벌 같은 인생이다. 꿀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다. 꿀벌은 열심히 모으고 저장해 자기도 살고 남에게도 이익을 주는 삶이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

해 나도 살고 남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는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세상에는 태어나서는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 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우리 모두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꼴벌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한다.

필자는 학교 재직 중에 관찰원을 조성하면서 관찰원 안에 꿀벌(양봉)을 길렀으며 학생들이 꿀벌을 관찰하고 친숙해지면서 여왕벌 수벌 일벌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며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받게 했고 꿀벌들이 모아놓은 벌꿀을 맛보게 했다.

우리는 먹어야 할 물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고 파놓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며, 목이 마르지만, 물을 길어 오기만 기다리다가 누군가가 물을 길어 오면 제일 앞장서 물을 마시려는 사람이 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으며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떠났다고 기록돼 있다. 여기에서 물을 누군가가 길어다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속칭 기회주의자라고 한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회가 오면 앞장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말한다. 세상에는 이런 기회주의자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필자의 옛 고향 집 둘째나무에 는 때 까치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새끼를 치려고 알을 품었는데 꾀꼬리는 때까치가 알을 품고 있으면 때까치 집에 알을 넣고 때까치알을 밀어내어 버린다. 그러면 그것도 모른 때까치는 꾀꼬리알을 자기가 낳은 알로 착각하고 부화해 깨어나면 먹이를 몰아다 꾀꼬리 새끼를 키웠다. 자기가 낳은 알을 때까치가 품어 부화시켜 주고 먹이까지 몰아다 길러 주니 얼마나 편리한 것인가! 그러나 알을 낳아 새끼를 번식해야 할 때 때까치로 서는 치명적인 피해다. 그러나 꾀꼬리는 나무 그늘에서 "꾀꾀 꾀꾀 파르르, 꾀꾀꾀 파르르"노래하며 여름을 보내고 자라난 새끼와 함께 어디론가 떠났다.

인생의 삶에서 세종류의 인생과 삶을 곤충과 비교해 알아보았으며 꿀벌처럼 자기도 살고 남에게 이익을 주는 보람된 삶, 우물을 파서 다음 사람들이 편리 사용할 수 있게 한 아브람의 배려와 고마움을 살렸고, 꾀꼬리와 때까치의 삶에서 기회주의자는 없어야 하는 것을 살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애국선열이 있었기에 후손들이 행복한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부류에서 살고 있으며 인간 삶의 진리를 반성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더욱 자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애국선열이 있었기에 후손들이 행복한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부류에서 살고 있으며 인간 삶의 진리를 반성해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더욱 자랑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한다.

독자기고

MZ세대의 자산관리전략 인적자산을 잊지 말자

김미애 NH농협은행 청주교육원 교수

MZ세대는 보통 사회 초년기라 소득이 그리 많지 않고, 결혼, 자녀출산, 자녀양육, 주택마련등 큰 계획에 집중돼 있는 시기이다. 그만큼 시드만들기가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자산배분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100세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만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100-나이'의 법칙이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여가는 자산 배분 방법인데, 이 법칙을 따르면 20~30대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을 60~70% 정도로 가져가면 된다.

예를 들어 35세인 가정이 금융자산으로 4천778만원(30대 가구 평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100-나이' 법칙을 적용하면, 약 3천100만원(65%)을 주식 등 위험자산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채권이나 예금에 투자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인적자산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보통 MZ세대는 인적자산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자산관리전략을 계획하기에 앞서 '나라는 인적자산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부터 면밀히 살펴야 한다.

35세 직장인이 매년 3천850만원(임금상승률 3%)의 연봉을 받으면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사람이 가진 인적자산의 가치는 9억6천250만원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20배나 된다.

그렇다면 인적자산을 포함했을 때 자산배분은 어떻게 될까? 전체자산에서 인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넘기 때문에,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3%에 불과하다.

인적자산의 성격은 직업과 소득의 안정성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어 매월 안정적인 소득과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채'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 이 경우에 자산배분은 보다 공격적인 비중을 더 두어도 된다. 실령 투자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정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인적자산의 성격이 주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중심자산을 좀 더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이다. 자산관리는 본인의 형편과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각각의 계획과 방법이 제시된다.

기본적인 본인의 인적자산의 특성을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학습을 통한 자신에게 맞는 지혜로운 자산관리 전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

인생(人生)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을 말하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불어 인간(人間)으로 살면서 육신을 채우며 가진 자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모든 것을 다



수사일보

http://www.susail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REENFIBROOMEYE
그린피브로디엠아이

지친 현대인의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합 건강기능식품

기억력 개선과 눈 건강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